방탄소년단 새 앨범 '프루프' 발표하자마자 글로벌 흥행 파워

발매 첫날 200만장 돌파…어게인 'BST신드롬'!

타이틀곡 글로벌 음원 플랫폼
'데일리 톱 송 글로벌' 차트 3위
65개국 아이튠즈 톱 앨범 1위
멜론 톱100선 첫 1시간만에 1위

그룹 방탄소년단이 10일 발표한 새 앨범 '프루프'(Proof)가 글로벌 차트를 휩쓸며 '월드 스타'로서의 굳건한 인기를 입증했다. 사진제공 | 빅히트뮤직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신드롬이 또 다시 시작됐다.
10일 발표한 새 앨범 '프루프'(Proof)를 전 세계에 발표한 동시에 각종 차트를 섭렵하며 글로벌 흥행 파워를 입증하고 있다.

앨범은 발매 첫날 200만 장 넘게 팔리며 더블 밀리언셀러에 올랐고, 타이틀곡 '옛 투 컴'(Yet To Come)은 공개 첫날부터 글로벌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데일리 톱 송 글로벌' 차트 3위를 기록했다. 10일 하루에만 총 717만8605회 스트리밍됐다.

●발매 첫날 '더블 밀리언셀러' 등극

12일 소속사 빅히트뮤직 따르면 '프루프'는 한터차트 기준 발매 당일 215만5363장(10일 밤 11시 기준)이 팔려나갔다. 방탄소년단은 이로써 2020년 2월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7'(MAP OF THE SOUL: 7)에 이어 또 다시 발매 첫날 200만 판매고를 올렸다.

빅히트뮤직은 "신보 발매 당일 200만장을 판매한 기록은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약 11개월 만에 내놓은 이번 앨범은 총 3장의 CD로 구성된 '프루프'는 방탄소년단이 2013년 데뷔 이후 9년간 활동 역사를 담은 앤솔러지(선집) 앨범이다. '옛 투 컴'은 온화한 분위기의 멜로디에 '당신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You and I, best moment is yet to come) 뜻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았다.

해외에서는 미국, 스웨덴, 일본 등 65개국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타이틀곡도 국내외 각종 기록을 갈아 치웠다.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이 지난해 8월 '톱100' 차트를 도입한 후 처음으로 공개 한 시간 만에 1위에 오르는 기록을 썼다.

또 이날 오전 8시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세계 97개국 아이튠즈 '톱 송'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뮤직비디오의 반응도 뜨겁다. 드넓은 사막에서 촬영한 뮤직비디오는 오후 3시 현재 6429만 건을 넘었다.

●"소중한 순간 어땠는지 돌아보며 즐기자"

그동안 방탄소년단은 새 앨범을 발표하며 글로벌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지만, 이번엔 생략했다. 정규앨범 형태도 아니고, 활동을 정리하는 앤솔러지 앨범이기 때문이다. 대신 음원사이트 멜론을 통해 간단하게 앨범의 수록곡을 소개하는 자리를 열고 팬들에게 "그동안의 활동과 진심, '아미'(방탄소년단 팬)를 향한 마음이 담긴 특별한 앨범"이라고 말했다.

멤버들은 "우리와 '아미'의 연대기다. 여러분들이 이 시절에, 또 저 시절에 어떻게 좋아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감회가 새로웠던 앨범"이라며 "우리의 소중한 순간이 어땠는지 한 번씩 보면서 재밌게 즐겨보자"고 강조했다.

팬들은 오랜만에 방탄소년단 특유의 '강하고 세게' 돌아온 것을 반겼다. 수록곡 중 '달려라 방탄'을 포함해 '본 싱어'(Born Singer)는 KBS 가요 심의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멤버들 역시 '달려라 방탄'에 대해 "우리가 가장 잘하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정국은 "일곱 멤버의 기나긴 여정, 신뢰, 믿음, 격려 등 감정을 음악으로 잘 보여주는 곡"이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왼쪽에서 네 번째)와 비등기 이사 겸 가수 보아(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8일 서울 성수동 사옥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주요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 SM엔터테인먼트

케이팝&사우디팝의 컬래버 이수만 SM 총괄 팔 걷었다

사우디 문화부장관 등 정부 주요관계자들 만남
SM타운라이브 현지 개최·콘텐츠 협업 등 논의

'케이(K)팝과 사우디팝(S-Pop)의 컬래버레이션'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사우디아라비아 문화부 장관 등 정부 주요 관계자를 잇달아 만나며 문화 협력 방안을 논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는 8일 서울 성수동 사옥에서 바데르 빈 압둘라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문화부 장관과 만나 문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측과 만남은 벌써 두 번째다. 앞서 이 총괄 프로듀서는 3월 23~24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방문해 하이파 빈트 모하메드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공주 겸 관광부 차관, 파이잘 알 이브라힘 기획재정부 장관, 하메드 빈 모하메드 파예즈 문화부 차관 등 정부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현지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메타버스 도시 건설을 함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엔 SM사옥에서 만나 적극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SM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브랜드 콘서트인 'SM타운 라이브'(SMTOWN LIVE) 사우디아라비아 개최, 사우디아라비아 제작사와 영상 콘텐츠 제작 협업, 음악 공연 장소 등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이날 자리에는 가수 보아도 함께 했다. 보아는 2014년부터 SM엔터테인먼트 비등기 이사로 활동 중이다.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는 "제가 구축한 CT(Culture Technology) 시스템을 활용해 사우디팝(S-Pop)을 프로듀싱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능한 인재를 글로벌 스타로 길러낼 수 있도록 협업 방안을 같이 찾아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사우디아라비아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음악 에코시스템(생태계)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바데르 장관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이효리·이상순 부부, 새로운 도전 '스타파워' 과시

미공개 사진전…쇼트필름 준비도
이상순 예능 '뉴페스타' 고정 출연

가수 이효리·이상순 부부가 '따로 또 같이' 스타 파워를 자랑한다. 이들은 사진전, 음원 프로젝트 등 새로운 영역까지 활동 분야를 넓혀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또 준비하는 과정을 예능 콘텐츠로도 선보인다.

이효리는 최근 시즌2를 시작한 티빙 오리지널 예능 콘텐츠 '서울체크인'을 발판 삼아 사진전까지 도전한다. 12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신사동에서 여는 데뷔 24주년 기념 사진전 '우리가 몰랐던 이효리'를 진행한다. 행사 기획 전반에 직접 참여해 권영호, 조선희, 윤우택 등 사진작가들이 찍은 미공개 사진들을 한데 모아 공개한다.

이어 악뮤 이찬혁과의 컬래버레이션 음원, 배우 구교환·이옥섭 감독 커플과 제작하는 쇼트필름 등도 준비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들은 다양한 분야를 시도하고 싶다는 이효리의 의지와 티빙의 IP(지식재산권) 확장 계획과 맞물려 성사됐다.

가수 이효리·이상순(왼쪽부터) 부부가 함께 출연 중인 티빙 예능 콘텐츠 '서울체크인'의 한 장면. 사진제공 | 티빙

각 과정은 '서울체크인'을 통해 공개한다. 콘텐츠는 플랫폼 내 유료가입기여자수 및 시청UV 1위를 기록 중이다. 이찬혁과 함께 신곡 '프리 스마일'을 녹음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은 유튜브로 공개한지 하루만인 12일 30만 뷰를 훌쩍 넘겼다.

남편 이상순이 여기에 힘을 보탠다. 사진전에 직접 찍은 사진을 내걸고, 신곡에 대해 조언을 해주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음악 관련 방송에 참여하고 있다. 7일 첫 방송한 JTBC 예능프로그램 '뉴페스타'에 고정 출연하며 다양한 공연을 내놓는다. 방송에서 이효리와의 일화도 공개해 화제몰이의 주역으로 올라섰다. 인디음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음원플랫폼 멜론에서 진행하는 '트랙제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최근 유앤미 블루, 라이프 앤 타임 등의 밴드를 이용자들에게 소개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